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illegible]

社說

生活의 現代化와 朝鮮人

本社無線電話放送에 臨하야

一

現代의 世界文明은 歐洲人의 文明이오 또는 科學文明이다 十九世紀以降으로 長足進步한 歐洲人의 科學文明은 眞실로 놀라신자라가는 氣勢가 그 底止할 바를 알수업다 科學의 文明은 卽物質文明이오 機械文明이오 따러서 技術的의 文明이다 어느 意味로는 現代의 生活은 卽機械와 技術을 中心으로 한 唯物的의 生活이다 數千萬의 生靈과 累千億의 財貨를 던저버린 歐洲의 大戰亂은 이 畸形的인 機械文明의 弊害에 基因한 바이라 한다 또는 온갖 矛盾과 不合理를 包括한 現代社會의 組織도 또한 偏物質的인 機械文明에 基因한 바라 하니 그도 또한 明瞭한 事實이다

二

그러나 吾人은 밥이 萬病의 原因이 된다 할지라도 밥을 廢할 수 업는 것이오 옷을 입음으로 생기는 큰 危險은 더욱 우리의 生命을 害할 것을 알 것이오 옷을 입으로 體質을 劣弱케 하는 點도 아는 바이지만 그러타고 옷을 廢할 수 업는 과 가티 우리는 필경 物質文明이나 機械文明의 弊害를 알면서도 드듸어 그로써 形成된 現代의 文明을 廢棄할 수는 업다 吾人이 『뿌다마』의 行者와 가티 天然의 大森林속에서 自然과 合和하는 生活로써 宇宙의 사랑 밧는 아이 되기는 이미 틀리엇고 『잡시』族이나 『키리에쓰』人과 가티 卽興的 詩歌와 浮雲飄跡의 放浪한 生涯로써 지낼 수 업슴을 아는 以上 吾人은 드듸여 現代文明의 謳歌者가 되고 科學文明의 追求者가 되지 아니할 수 업는 것은 다시 말할 必要도 업는 것이다 今日의 一國家 一民族의 盛衰는 어느 意味로는 그의 科學과 밋 機械文明에 對한 造詣의 深淺으로써 測度하는 것이다

三

朝鮮人은 由來로 物質에 淡泊하엿고 딸하서 機械와 技術에도 等閑하엿다 卽 科學에 等閑하엿다고 한바만 하엿다 그 結果는 産業의 不振 및 衰頹를 오게 하엿다 할 것이다 孝悌忠信의 敎訓이나 治國平天下의 理想이 可치 안흠이 아니오 弘遠치 아님이 아니지마는 이 편벽된 形而上的 唯心的의 傾向이 物質에 淡泊하고 科學에 等閑하여진 一因도 될 것이오 그의 國際上 地理的 位置나 或은 政體와 社會의 事情이 또한 그를 成한 事情도 적지 안켓지만 何如間 朝鮮人이 由來로 偏唯心的으로 되여 物質文明에 疎外하여진 傾向이 잇섯고 그로 因하야 現下의 全民族的 窮乏을 招來한 一部의 理由가 되는 것도 또한 否認할 수 업는 事實이다 그러나 吾人은 無數한 先民과 哲人들의 生活의 묵은 자취를 돌어보건대 決코 科學的 및 技術的 素質이 不足하지 안흔 것을 姑捨하고 도리어 매우 非凡한 天才的 優越性을 가진 것을 두구나 首肯할 것이다 그는 반듯이 高麗磁器이나 活字이나 鐵船이나 또는 飛行機發明의 遺記錄이나 또는 慶州의 諸古物이나 高句麗의 古墳中으로서 發掘되는 先民들의 手蹟을 一一히 例하지 아니할 것도 업시 매우 明確한 事實이다

四

吾人은 先天的으로 優越한 科學的 및 技術的의 素質을 가지고도 오늘날 斯界에 對하여는 慘落한 落伍者가 된 것은 粉飾할 수 업는 事實이다 洪湛軒의 天界三丸說이나 朴燕岩의 地轉說이나 徐花潭의 物理에 對한 研究이나가 모다 纖述的 大成에 닐으지 못하고 오늘날의 支離滅裂한 狀態에 써진 것은 참으로 今古를 돌아보아 跌足長嘆할 바이다 그는 다만 李世勣의 平壤破壞나 遼士의 忽汗城變破이나 白馬江畔에 落花와 가티 슬어지던 百濟王宮의 哀話이나에 지지 안케 有心人의 太息과 痛恨을 말지 아니할 바어니와 그러나 吾人은 뒤늣게라도 다시 이 科學으로의 猛進 技術로의 光復을 힘써 求하지 아니할 수 업는 바이다 吾人은 現代文明을 消化하자 科學을 理解하고 利用하자 모든 機械를 製造하고 驅使하여야 할 것이다 物質의 窮乏을 부르지즌 隣國의 頑儒도 잇는 바이지마는 吾人은 精神的 復興과 한가지 이 科學的 復歸 物質的 再生도 真摯하게 追求하지 아니할 수 업다

五

오늘날의 朝鮮人은 모든 物質의 文明 機械의 文明을 利用하기를 喜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利用을 즐기는 이만큼 그 文明을 理解하지 못하엿고 創造하지 못하엿고 또는 그를 掌握하지 못하엿다 할 것이다 그런 으로 新文明의 輸入과 밋 그 利用의 分量과 正比例로 더욱 더욱 民族的 貧窮에 빠저가는 것은 不可避할 理勢이다 그만 아니라 모든 管理의 幹能과 밋 그 技術이 不足하고 새 新文明의 方式으로써 建設된 社會의 統裁權을 繼承하기는 至難한 일일 것이다 吾人은 우리들의 靑年들이 아즉도 自然科學에 等閑하고 技術的 修鍊에 等閑함을 보매 항상 嘆惜하는 바어니와 이제 隣邦의 技術者와 밋 그들의 機械를 빌어 現代의 最新式의 文明의 利器와 밋 그 效用을 實驗하게 됨을 臨하매 가장 無量한 感慨에 쌔운 바 잇다 天下의 父老와 밋 靑年들은 깁히 同感할 바 잇슬 줄 밋는다

中國軍事善後會議

五個議案을 協議決定할터

(北京十六日發) 中國의 大動亂도 大畧結末되엇슴으로 今에 必要로 여기는 것은 軍事改革이다 政府는 이 實行에 努力中인대 未久에 軍事善後會議를 開하고 左의 事項을 決議할 터이더라

一、長江의 各省軍隊의 編成을 밧구어 하고 中央으로부터 軍政長官을 派遣하야 未拂給料를 支拂함
二、執政政府의 名으로 軍事會議를 召集하고 軍事通則及裁兵費用을 議함
三、各省軍隊所管은 軍事會議에서 決하고 새로하는 募兵을 禁함
四、各方面의 作戰計劃及河南省內의 軍事行動은 軍事善後會議後에 一般에게 提示케 하고 再次右運動을 不許함
五、軍事會議의 決議事項은 國民의 批准을 得한 後에 命令으로써 發表함

米國海軍擴張熱과

海軍長官聲明書發布

(華盛頓十五日發) 米國海軍擴張運動이 熾烈하게 되매 米國政府當局은 右不穩說을 一掃할 方法을 協議中이다 이러한 官僚은 華盛頓會議에서 促進된 平和主義를 破壞하고 不遠間에 開催할 第二軍縮會議의 成功을 不可能하게 할 虞慮가 잇슴으로 海軍長官은 此를 爲하야 『스테트멘트』를 發하야 米國海軍의 狀態에 對하야 憂慮하는 米國新聞의 論調는 公平을 缺하엿다 지금에 米國은 最良의 海軍을 가지고 잇다고 言明하엿더라

윌손前統慰靈

米官民多數가

(華盛頓十五日發) 米國大統領『쿨리지』氏外 現在及前政府高等官의 多數는 米國上下兩院協議會를 機會로 故大統領『윌손』氏의 靈에 敬意를 表하엿다 그 莊嚴한 光景은 거의 八年前의 『윌손』氏가 歐洲大戰參加의 敎書를 朗讀하든 時와 匹敵하엿더라

大飛行船建造

容積六百萬立方呎의

(華盛頓十五日發) 米國海軍技師는 豫算六百萬弗로써 容積六百萬立方呎의 飛行船을 建造할 計劃을 立案中이라고 下院에 報告하엿더라

第二軍備縮少會議

日本도 主義로는 贊成

(東京十六日發) 國際聯盟日本委員으로부터 外務省에 對하야 目下米國의 提唱코자 하는 第二軍縮會議에 對한 日本의 意嚮을 請訓하엿슴으로 十六日의 閣議로 協議한 뒤에 主義에서는 贊成할 旨로 詳細한 長文으로 內訓을 하기로 決定하엿더라

알바니아叛徒前進

(베르그라드十五日發) 『알바니아』叛徒가 前進하야 『스크라리』를 奪取하랴 激戰中이더라

英第四皇子

東洋漫遊說

(倫敦十五日發) 英國第四皇子 『쪼―지』殿下는 明年一月末에 中國을 비롯하야 東洋方面으로 漫遊한다더라

獨新內閣組織은

스氏에게 降命

(伯林十五日發) 獨逸大統領『에벨트』氏는 現外務長官『스트레제만』氏에게 對하야 新內閣組織을 命하게 되리라고 推測되는대 『스트레제만』氏는 十七日 又는 十八日에 療養地로부터 伯林에 歸할 터이며 氏가 新內閣組織을 拒絶하고 又는 責任을 回避하면 『에벨트』大統領은 又『막스』氏에게 內閣組織을 命하게 되리라 하더라

太平洋岸 人種關係調査

日本人分發表

(사크라멘트十五日發) 『스탠포드』大學總長『윌바―시』氏는 太平洋問題委員長으로 太平洋岸에 在한 人種關係를 調査한 바에 依하면 日本人은 加州人口의 三分以下인대 主要農産物의 六割九分을 生産하고 其他物은 五割七分이나 生産한다 또 同調査에 依하면 結婚禁止以來로 日本人의 出生率 減少를 示하엿다 또 米國生인 日本人도 여러가지 障碍를 밧는다 例하면 此等이 優等成績으로 米國大學을 卒業하여도 米國人의 卒業生에 比하야 劣等의 地位에만 就職하게 되고 또 米國敎育을 受한 彼等이 亞細亞에서 成功할 에는 適當치 못한 것을 委員會에서 發表하엿더라

對議會策協議

十六日定例閣議

(東京電) 十六日의 定例閣議에서는 關東廳의 法案二三申請을 採用할 件 朝鮮總督府에 代書法新設의 件 其他를 決定한 後에 對議會策에 對하야 協議하고 現內閣의 政綱政策을 施行하기 爲하야 議會에 在한 加藤首相의 施政方針演說에 關한 諸案과 豫決行財整理의 經過 貴族院 其他에 對하야 密議하얏더라

三派政府會見

(東京電) 貴族院制度改革問題에 關한 三派交涉委員과 政府側委員의 會見은 十六日에 首相官邸에서 會見하고 爲先三派委員代表 岡崎邦輔氏로부터 政府側의 改革程度 如何를 質問함에 對하야 各種材料를 蒐集하고 世界各國의 制度를 調査하야 日本에 關한 特有問題를 考究하는 中이다 政府側에서도 至急히 하는 中이나 至今에 바로 日限을 明言할 수는 업다고 回答하엿더라

上院改革案

今議會에 提出

(東京電) 貴族院問題에 關하야 別項과 如히 三派와 政府와의 會見에서 今日貴族院으로 하여곰 民衆化케 하든지 或은 現在의 特色을 存續하야 二院制度의 妙要를 發揮케 하든지 할가 하는 根本論이 相爭되는데 結局은 現在의 特色을 存케 함에 多數의 意嚮이 一致하엿다 또 三派側에서는 政府는 上院改革案을 今期議會에 提出할 意嚮이 잇다고 確言하는 中이더라

外務省內異動

(東京電) 松平外務次官의 駐米大使決定에 就하야 米國政府에 對하야 新任手續을 取할 것을 吉田代理大使에 訓電하엿다 後任次官에는 亞細亞局長出淵勝次氏로 亞細亞局長의 後任에는 小村欣一 情報部次長에는 武者小路公共氏가 任命되기로 되엇더라

密陽에 設立된 製紙組合

附近經濟界의 福音

密陽郡丹陽面은 密陽驛에서 東北으로 向하야 約四十里를 距在한 處이나 其北方에 在한 表忠寺는 朝鮮에 有名한 古刹이라 山水가 明媚하고 洞察이 深邃하야 南鮮地方의 하나이 아니라 同面 汎楮里에는 楮樹가 密立하야 製紙業奬勵上에 最히 良好한 天然的 素質을 有한 으로 古人도 此에 着念하고 出來斯業을 勸奬하야 丹陽面에서 産出되는 柿田白紙와 壯紙와 張板紙等은 紙質이 純潔厚白하고 堅緻壯大한 特色을 具備함으로 此를 貴重品으로 取扱하야 富豪家의 專用品이 되야서 密陽紙라 價値가 頗히 顯著함은 一般이 共認하는 바이어니와 如斯한 素質을 有한 製紙가 今日 如何한 狀態에 在하냐 하면 [illegible] 從來의 楮田所在地가 九川, 泛楮, 菊川, 酒淵, 杜谷 [illegible] 現今 販路는 金海, 東萊, 蔚山, 馬山, 大邱, 淸道, 慶山, 昌寧等인데 方針은 近日 生産者의 自覺과 生産業의 販路의 擴張을 圖하기 爲하야 製紙組合을 設立한 後 表忠寺를 中心으로 하고 製紙의 原料되는 楮田을 擴張하며 製紙의 工場을 建設하야 雨天과 季節을 不問하고 恒時 製造하도록 設備를 充分히 하고 此에 對한 經費는 幾分間 道地方費의 補助를 受케 하야 將來에 面積二十町步를 擴張할 計劃이라 하며 明年度에는 密陽邑으로부터 表忠寺外지 道路도 改築하야 原料와 製品의 運搬을 便利케 하리라더라(密陽)

斗湖青年事業

普通學校를 後援하고 勞働夜學을 準備한다

慶北浦項斗湖洞에서는 時代에 順應하야 去六月分에 靑年會를 創立한 後 同會內에 普明學校의 後援部를 置하고 該校를 爲하야 活動하는 中이며 또 會員中 張萬俊, 李昊道, 金鍋權, 黃致連 四氏는 方今 勞働夜學準備에 努力中이라는데 同會의 幹部는 左와 如하다더라

會長 張萬俊, 幹事 金鍋權, 黃致連, 書記 [illegible]柱, 顧問 [illegible] 外四人(浦項)

浦項 青年會館竣工

既報한 바와 如히 慶北浦項迎日靑年會에서는 去九月에 會館建築工事에 着手하야 建坪四十餘坪의 美麗한 建物은 이미 竣工을 告하엿스는데 至今은 冬寒期인 故로 落成式은 明春으로 延期하엿다더라(浦項)

軍威製筵發展

年一萬五千枚產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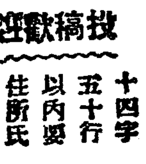
疊表『다다미』生產地로 慶北에 唯一한 軍威郡에서는 挽近數三年以來 그 產額이 逐年增加하야 一枚平均價格 一圓五十錢의 疊表 一萬五千枚以上을 計上하게 됨으로 同郡勸業課에서는 五枚産出마다 鐵一個式을 賞與하야 抽籤獎勵하는 바 今年八月부터 明春外지 出荷期라 하며 現在狀況으로 豫測하면 今年도 例年以上의 好成績을 보리라는데 其將來는 頗히 有望하리라더라(大邱)

冬季講習會開催

晉州郡教育會主催로

晉州郡敎育會에서는 冬季休暇를 利用하야 冬季講習會를 開催할터이라는데 開催要項은 如左하다더라

一、科目 體操、數技
二、期間 自十二月二十六日至十二月二十八日
三、會場 晉州第一公立普通學校
四、講師 釜山第二公立尋常小學校訓導 北村佐太一
五、會員 敎育關係者約七十名
六、申込 十二月二十三日外지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要住所氏名明記

衡平社原州支社 原平講習所敎員 鄭曬翼君에게

◇朝의 門戶가 열리고 참스러운 人間性이 모든 因襲의 쇠겁질을 벗고 나타날스록 이 世界는 萬民平等의 理想境을 向하야 나가는 것이오 또는 꼭 그리되여야 할 것이다 이 意味에 잇서서 가튼 人間다운 生活을 하여 보겟다는 人間으로 미테로부터 나오는 힘 되는 부르지즘이 위보자 함이 白丁의 稱名을 밧는 同胞들의 날온 衡平運動이다 그리고 지금 君이 在職한 原平講習所는 累百年來 不合理한 差別待遇下에 가즌 애를 다든 原州衡平社員들이 업는 살림에 빈주먹으로 푼푼이 모은 돈으로 維持하여 가며 그들의 男女이나 老少이나 또 어린이 가지도 모다 光明을 求하기 爲하야 배워야 하겟다는 애가커린 要求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한데 君은 이 애가커린 衡平社員들의 헤아릴 수 업는 希望을 爲하야 그들의 푼푼이 모은 金錢을 바더서 自己의 生活을 하여 가면서도 그 衡平社員들의 運動과 切願에는 一片의 同情과 理解도 업시 도리어 그를 실혀하고 미워하야 講習所의 門牌엽헤 달린 衡平社看板을 떼여 버리게 하엿스니 모든 衡平社員들의 意思를 無視하는 君의 專橫은 대체 무엇인가? [illegible] 君의 所謂 敎育이 어떤 不合理한 階級的 偏見에 가치워 人類의 참스러운 性能을 抹殺케 하엿슴을 [illegible]

◇忠北의 淸安, 忠南의 江景, 大田, 禮山其他各處의 衡平社안에서 講習所敎員들이 어떠케 老少男女들을 誠心으로 敎導하는가를 君은 아는가? 君은 이제 天眞한 良心에 돌아보아 깁히 反省하여 보라 [illegible]

◇君과 가티 여름 모르고 人道의 赤裸裸한 本義에 [illegible] 封建的 思想을 품은 者는 [illegible] 스스로 [illegible] 人生의 水平面으로부터 除外하야 [illegible] 가 아닐가? (正義로보는者)

素을 有한 ... (see above)

鎭安에 模範農村

全北鎭安郡三洞里는 一個山邑의 一隅인 窮僻한 農村으로 現時大都會地의 文明그것에 比하면 可觀할 만한 施設이 無하다 할지나 住民이 一般的으로 勤儉節約하며 農業에 勤勉함으로 隣里로부터 模範農村이란 稱號를 드러온지가 已久한데 今春에 至하야는 從來의 洞規를 一層刷新하는 同時에 眞實한 農村振興을 目的으로 該洞有志 全廣三氏外 諸氏의 盡力과 靑年 全承國, 金瀚俊 諸君의 活動한 結果 洞民이 一致協力하야 華麗한 朝鮮式의 模範을 建築하고 諸般事業을 進行中인바 第一 敎育方面으로 觀察하면 現時 무엇보다도 最急務인 勞働夜學部를 設置하고 一般農民의 子與任을 敎養하며 産業方面으로 보면 農事改良의 第一步인 種子를 改良키 爲하야 同稧의 基本財產인 田畓幾十斗落에서 生하는 每年의 小作料로써 [illegible]의 水稻種子를 交換하야 一般洞民에게 分給하야 種子改良에 奬勵하고 副業을 勸奬하야 互相勉勵함으로 此所謂家給人足이며 春秋를 利用하야 家家戶戶가 養蠶에 努力함으로 養蠶村이라는 稱號로 들어옴으로 附近에서는 此洞을 見倣치 아니하는 사람이 無하다더라(鎭安)

尙州殖銀業績

慶北尙州邑 殖產銀行支店의 客月業績은 左와 如하다더라

預金이 二四八、九九〇圓인바 前月에 比하면 五一、九四〇圓이 增加되고 貸付金이 一、四〇五、一七〇圓인바 前月에 比하면 四九、七三五圓이 增加되엿다더라(尙州)

晉州棉花販賣高

本年十一月三十日外지 晉州郡管內棉花共同販賣高를 들건대 八十六萬九千五百八十四斤 金額二十二萬三千二百七十七圓四十四錢이라더라(晉州)

豊基小作臨時總會

豊基小作組合은 去六日午前十時에 本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終日토록 諸般事項을 決議한 後 午後七時에 閉會하엿다더라(豐基)

●釜山學組會議 釜山府學校組合에서는 今月十五日午後一時부터 釜山府廳會議室에서 組合會議를 開催하고 追加豫算에 關한 件을 附議(釜山)

●兒玉關東長官來釜 兒玉關東廳長官은 去十二日夜列車로 來釜하야 卽時連絡船으로 東渡하얏다고(釜山)

●漆原公普生來釜 慶南漆原公立普通學校生徒 釜山見學團一行은 去十二日에 來釜하야 釜山各處를 見學하고 歸校하얏다고(釜山)

麗水의 美擧 學資稧

全南麗水郡華井面에서는 面內의 無產者의 子弟中 俊秀한 者에게 高等敎育을 施할 目的으로 昨年一月부터 該面有志 林鳳奎氏外 十四人이 十年을 限하고 每人이 金五十錢式을 貯蓄하야 滿期되는 十年後에는 其資金으로 將來에 有望한 事業을 經營하야 一面으로는 面民의 福利增進을 企圖하는 同時에 그에서 生하는 剩餘金으로써 學資에 補充하여 주고자 하는 趣旨下에 學資稧를 組織하엿던 바 그 稧員들의 熱誠은 조금도 變함이 업시 實行하여 온 結果 組織된지 二個年에 不過한 이 때에 資金이 既히 五百餘圓에 達함으로 一般은 稧員諸氏의 熱誠을 感服한다더라(麗水)

木浦에 에쓰語講習

大山氏를 講聘코자 準備에 奔忙하다고

全南木浦에서는 [illegible]商均氏外 二三靑年의 發起로 去十一月初旬에 『에쓰페란토』研究會를 組織하고 講師로 當地金翼鎬氏를 請聘하야 十日間에 講習을 擧하고 金翼鎬氏는 過般京城에서 開催되엿든 朝鮮에쓰페란토大會에 木浦講習會代表로 出席하얏다가 今月一日에 來木하야 더욱 今番에 『에쓰語』의 普及及宣傳으로 京城製花學堂大學部敎授로 『에쓰語』에 多年間研究가 만흔 大山時雄氏를 請聘하야 講習을 하기로 決定하고 方今 準備에 紛忙中이라더라(木浦)

務安에 勸農組合

一般의 期待가 만타

全南務安郡安佐面如乾里는 交通이 不便한 孤島一隅의 小村인바 此等無望을 遺憾으로 생각하는 當地靑年 安探泰, 金旭炫, 金仁玉 諸氏의 發起로 去七月十五日에 如乾里 金仁玉家에서 百餘名이 會集하야 勸農組合을 創立하얏는바 趣旨는 互相親睦, 慶吊相問, 農事改良等이오 事業으로는 第一步로 組合所有田十五斗落에 棉花와 麥을 耕作하고 除草時에는 共同勞力하야 其所得으로 勞働夜學費用에 補充한다는데 同里任員은 如左하다더라

組合長 安探泰, 總務 金旭炫, 財務 金元吉, 金仁玉, 金仁守, 評議 安亭[illegible](木浦)

少年學藝開催

郭山天道敎主催로 學藝品을 懸賞募集

天道敎郭山宗理院少年部主催와 時代, 東亞, 朝鮮 三新聞分局의 後援으로 來年一月二, 三兩日 郭山에서 少年少女學藝會를 開催한다는데 學藝品의 種類는 圖畵, 習字, 作文, 手工品으로 一般少年少女에게 懸賞募集을 할터이라는바 應募期日은 十二月十二日부터 同二十五日外지라는데 懸賞物品은 雜誌『어린이』一個月分이라더라(郭山)

●益山郡整理 今般行政整理로 因하야 益山郡佐野郡守와 羽根田勸業課長이 更迭되얏는데 郡守는 全北道學務課에 勤務하는 道屬中某氏로 內定되엿다더라(裡里)

●裡里公普後援會幹部會 全北益山郡裡里公立普通學校後援會에서는 去十一日午後三時부터 同校內에서 會長林普桓氏의 司會로 臨時幹部會를 開하고 諸般問題를 討議하엿다는데 敎室增築은 明年二月以內에 起工키로 하엿고 同增築費徵收에 가장 成績이 만흔 幹部中 金仁炯氏의 勳功을 褒賞키 爲하야 銀盃一組를 贈呈하고 今番全州郡[illegible]公立普通學校長으로 榮轉하는 [illegible]氏는 同會會計의 任으로 多年間 熱心從事함을 記念키 爲하야 銀時計一個를 贈呈한 後 同五時半에 閉會하엿다더라(裡里)

●全州專賣刻煙草製造 全州專賣支局에서는 過般來 刻煙草의 需要가 多함으로 從來의 卷煙草製造만으로는 아니되겟다 하야 今回에 刻煙草도 製造하기로 되야 來一月부터 開始한다고(群山)

東津水利復活協議

東津水利組合復活問題에 關하야는 去十二日에 全北知事가 京城으로부터 歸任后 來二十日頃에 關係地主와 協議하기로 되엿다더라(群山)

金女史의 美學

全南務安郡安佐面如乾里 金愛德女史는 貧寒한 살림임을 不顧하고 當地勸農組合의 趣旨를 贊同하며 勞働夜學에 同情하야 四圓價格의 旗를 만들어서 寄附하얏는바 該地方人士는 同女史의 稱頌이 藉藉하다더라(木浦)

萬頃江改修工事의

着手는 來年三月豫定

萬頃江改修工事에 對하야는 目下總督府工事課에서 技術員數名을 派遣하야 精密한 基本調査를 하는 中인데 同問題는 現在九分九厘外지는 實現할 可能性이 잇서 뵈이나 다만 議會의 協贊을 經할 것인 故로 만일 議會의 承認만 되면 卽時工事에 着手할터인바 아마 來年三月初旬에는 此의 起工이 되리라고 土木當局者는 말한다더라(群山)

全北製紙統一

販價向上策으로

全北에 對한 製紙의 生産高는 一年에 一萬五千塊에 達하야 그 價格이 約四十萬圓以上이 되나 製品의 不統一과 販路에 迷惑하야 生産上窮迫의 汎害가 不少함으로 近日에 製品의 檢査를 行하는 同時에 此의 販路되는 中國方面에 對하야 歡迎하도록 對策을 講究中인데 全北道廳에서는 製紙模範工場을 順次各郡에 設置할 터이라더라(群山)

十五日安東縣物價

去十五日에 調査한 바에 依하면 安東縣重要物品時勢는 左와 如하다더라

▲穀物部		
遼陽粟百斤	金	八、〇〇〇
海城粟百斤	同	七、七〇〇
四平街粟百斤	同	七、三〇〇
糯粱百斤	同	五、五〇〇
粱百斤	同	八、〇〇〇
麥粉一袋	同	五、〇〇〇
稻白米一石	同	三一、〇〇〇
赤豆一石	同	二一、五〇〇
綠豆一石	同	二一、〇〇〇
黃豆一石	同	一〇、〇〇〇
豆粕一片	同	二、三五〇
[illegible]一石	同	三四、〇〇〇
▲錢鈔部		
鎭平銀現物一兩	貫金	一、九九八
大洋錢一元	同	一、五〇〇
小洋錢一元	同	一、二五七
中國票一元	同	八〇六
(六番通營成號調査)		
▲木材部		
原木紅松一連一才	金	一、〇八〇
原木杉松一連一才	同	一、〇六〇
椴木 一連一才	同	一、〇六〇
樅木	同	一、〇八〇
製材紅松二間一才	同	一、三三二
杉松	同	一、一一七
落葉松二間一才	同	一、一二五
(三番通美宗登商會調査)		
▲牛皮其他		
京大牛皮百斤	小洋	五一、〇〇〇
中大皮	同	四七、〇〇〇
雄皮	同	四三、〇〇〇
平大牛皮	同	五〇、〇〇〇
改良大皮	同	五五、〇〇〇
見賦紙百卷	同	七三、〇〇〇
貨物紙百卷	同	四五、〇〇〇
赤皮每株中國	票	二五、〇〇〇
山皮每株	同	一五、〇〇〇
黃皮每株	同	九、〇〇〇
狸皮每株	同	四、〇〇〇
海蔘百斤	金	三〇、〇〇〇
(中國稱十四兩重一斤)		
墉管魚百斤	金	一〇、〇〇〇
細辛百斤中國	票	四〇、〇〇〇
大棗百斤	同	一〇、〇〇〇
乾柿百斤	金	一五、〇〇〇

(以上舊市街永安街通聚合調査)(安東縣)

客月南浦出入船數

七十一隻、一萬八千餘噸

鎭南浦稅關監視課의 調査한 바에 依하면 去十一月中에 鎭南浦港에 出入한 船舶은 入港船이 三十隻一萬二千二十二噸 出帆船이 四十一隻六千二百十三噸 合計七十一隻一萬八千二百三十五噸이라는데 船籍別船舶數는 左記와 如하다더라

▲入港船 朝鮮汽船三隻二千五十六噸、日本汽船十隻七千八百十一噸、中國汽船一隻八百三十八噸、諾威汽船一隻一千一百四十一噸、計十五隻一萬一千八百四十六噸、外에 日本帆船一隻三百七十噸、中國帆船十四隻一百三十九噸 總計三十隻一萬二千二十二噸

▲出帆船 朝鮮汽船三隻二千五十六噸、日本汽船二隻一千七百七十噸、中國汽船一隻八百三十八噸、諾威汽船一隻一千一百四十一噸、計七隻五千八百〇五噸、外에 中國帆船三十四隻四百八噸、總計四十一隻六千二百十三噸(鎭南浦)

食料品五千噸輸出

南浦에서 上海에

朝鮮郵船의 上海航路就航汽船今安丸은 去十三日鎭南浦에 寄港하야 米國으로부터 輸入하는 上海後線出荷物砂糖一萬俵九百二十噸 『미린쉬』小麥三百噸을 揚陸한 後 『시멘트』二千一百袋百四十噸 外에 鹽鰕, 干麵, 及其他雜貨十噸을 合하야 五千六十餘噸을 積載한 後 十四日午後五時에 出帆하엿더라(鎭南浦)

安東基督任員改選

安東縣朝鮮人基督敎會에서는 去十四日에 任員을 改選하엿는데 氏名은 如左 領袖 崔仁鎬, 張基瑛, 朱承洙 四人이오 男執事는 金志葉, 崔鼎元, 金永寬, 裴厚淸, 李逸雲, 金萬永, [illegible] 七人이오 女執事는 朱永淑, 朴炳熙, 金福寶, 金淳元, 裴仁濟 五人이라더라(安東縣)

新旗間自働車開通

結氷으로 中止되엿든

龍岩浦自働車商會의 經營인 新義州龍岩浦間定期自働車는 三十川半氷으로 因하야 그동안 運行을 中止하얏던바 去十三日부터 從前과 가티 開通되엇다더라(龍川)

●龍川淘汰警官 今番行政整理로 龍川警察署에서 淘汰된 警官은 日人巡査一名인이라더라(龍川)

●博川署長異動 博川警察署長 大西由一氏는 去十一日에 昌城으로 轉勤되고 其代로 新義州警部補 吉野作治氏가 就任한다더라(博川)

洪原郡民代表者會

四寸輪車使用의 消介實施問題로

咸南洪原郡에서는 去六日洪原邑內 韓永敦氏家에서 郡民代表者會를 開催하엿는데 其內容을 聞한즉 道令에 依하야 大正十五年度부터는 三寸鐵輪使用은 全廢하고 四寸鐵輪車만 使用한다는데 對하야 郡內農民一般은 此에 不便을 感함이 아니라 間或 四寸鐵輪車를 使用할지라도 一二等道路外 또는 山間道路가는 곳에서는 使用하기 不能한 同時에 壹百圓以上價値의 大車가 아니면 絶對運轉키 不能함으로 例前에 使用하던 三寸鐵輪車를 그대로 使用하게 하여 달라는 陳情書를 道當局에 提出하기로 하고 다시 郡民代表者會를 來二十一日洪原邑天道敎宗理院에서 開催한다는데 代表者는 一面에 各二人式이라 하며 準備會委員은 左와 如히 選定되엇다더라

金元燦 姜忠模 崔庚鏞 李汝 金信根 韓承敎外二人(洪原)

大豆의 好時勢로

元山商人은 入庫益主

近來大豆時勢는 漸漸高騰할 氣勢임으로 物品가진 商人은 現在時勢에 放賣치 아니하고 時品은 全部入庫하야 越年後의 高價를 企待하는 狀態임으로 元山倉庫와 如히 融通資金 잇는 곳은 特히 繁昌하야 至今은 滿庫의 好景氣이라더라(元山)

明太共同販賣

三湖魚組에서

咸南三湖漁業組合에서는 去十五日에 乾明太五十二駄를 共同販賣하엿는데 價格은 每駄에 六十五圓七十五錢으로 落賣되엿다더라(三湖)

永興財界도 樂觀

大豆輸出旺盛으로

永興大豆의 年末輸出狀況은 昨年에 比하야 一層激增의 景氣로 經濟界에 活氣를 一分補助케 되엿는데 이제 今年十月부터 十二月中旬外지의 狀況을 示하면 輸出高가 三萬五千八百石으로 代金收入高가 十九萬二千九百六十二圓의 多額에 至하는바 此에 依하야 明年四月外지 推算하면 實로 今日外지의 倍額을 見할터임으로 此로 因하야 永興財界는 前途가 樂觀이라더라(永興)

兩訓導의 熱誠

臨溟公立普通學校訓導 李興在, 姜昌鎬兩氏는 當地敎育界를 爲하야 臨溟女子夜學院을 設立하고자 方今努力中이며 또 明春부터 同校內에 六學年以上程度의 補習科를 設置할 計劃으로 去十一日에 道當局에 許可願을 提出하얏슴으로 一般人士는 兩氏의 稱頌이 藉藉한 同時에 速히 許可되기를 苦待한다더라(臨溟)

元山豫算決定

大槪는 原案대로

元山府協議員會는 旣報와 如히 去十三日午前十時頃에 府廳樓上에서 開催하고 明年度歲入歲出豫算에 就하야 協議한 結果 大槪는 原案대로 通過하얏스며 따라서 元山海岸埋立工事繼續費二十五萬圓을 可決하고 府債는 年八分의 低利로 外[illegible]에서 融通하게 되엿는데 可決된 明年度歲入歲出豫算은 左와 如하다더라

△歲入部
經常部 十七萬一千〇四十一圓
臨時部 十三萬三千九百三十一圓
合計 三十萬四千九百七十二圓

△歲出部
經常部 十二萬三千九百八十一圓
臨時部 十七萬九百九十三圓
合計 三十萬四千九百七十四圓(元山)

元山商議의

明年度豫算協議

元山商業會議所에서는 今月十六日午後三時부터 任員會를 開하고 明年度豫算編成에 就하야 協議하엿더라(元山)

咸北牛價高騰

日本輸出의 旺盛으로

大正十一年부터 日本에 輸出하는 咸北牛肉은 百斤에 對하야 一圓의 地方費補助를 與하야 獎勵한 結果 近來에 至하야는 其效果가 顯著하야 雄基港에서 積出하는 生牛肉의 數量은 去十一月부터 明春四月外지 半年間에 約一萬八千頭에 至하리라 豫測하는데 其輸出地는 大槪廣島, 宇品地方이며 目下 淸津에는 各地의 關係商人이 集合하야 淸津屠殺場에는 每日四十頭乃至六十頭를 屠殺中임으로 咸北道內 各地牛市場은 俄然히 活氣를 呈하야 牛價는 平常時보다 二割이나 高騰하엿고 또한 每月五日隔의 定期牛市場이 되든 것을 今後는 每日開市하도록 當局에 請願中이라더라(元山)

三湖明太漁獲近況

關北의 特產物인 明太의 產地로 有名한 三湖明太漁獲成績을 當地漁業組合의 調査에 依하면 去十四日外지 七百二十八駄(一駄二千尾)라는데 昨年同期에 比하면 約三分一에 不過하나 昨年보다 時期가 尙早함으로 多數漁獲될 希望이 有하며 價格은 現在生太는 每駄七十圓이라더라(三湖)

元山驛貨物取扱

十日間에 六千噸

元山驛貨物取扱所에서 今月一日부터 十日外지 [illegible] 는 千六百十[illegible] 는 四千三百三十六噸 [illegible] 百五十二噸에 達한바 其內譯은 左와 如하다더라

▲發送 明太一四九 擔魚五六 三生鮮一八四 木材五九 雜用品九八 其他六六 合計一、六一六
▲到着 米六五二 粟[illegible] 豆一一八八 [illegible] 四一 鐵類[illegible] 三〇 卷煙三九 其他[illegible] 合計四三三六(元山)

明米

仁川期米第二報 十二月十六日

後場膠着

今前場阪地止價三十五圓九十一錢인 低報와 共히 二十五圓〇五錢에 止場한 當市場은 阪地後場始價 三十九圓九十一錢인 前止價와 同樣의 報를 據하고 三十五圓〇六錢에 場을 始한 後 三節에 入하야 阪地二節九十八錢으로 三節九十六錢인 反高를 接하고 九錢外지 反撥하더니 商勢俄然軟弱하야 二錢으로 下押하엿다가 阪地四節九十八錢인 二番同價로 九十九錢에 止場한 情報를 接하고 五節〇七錢으로 結局〇四錢에 場을 止한바 高低의 差는 僅히 七丁이며 阪仁의 鞘는 四百九十五丁이더라

大阪場況 十六日後場

今後場阪地場況은 前場和時賣로 容易히 上伸치 못하든 餘地에 各地의 一硬一軟의 情報를 受하고 三木筋의 賣와 東京筋의 買進으로 三十九圓九十一錢인 亦前場止價와 同樣으로 場을 始한 後 賣物이 稀少하야 九十八錢으로 跳返하얏다가 地場及兵庫筋의 賣押으로 九十六錢外지 小弛하얏스나 結局 地場買로 九十九錢에 小擬히 場을 止하엿다고

◇各地止價◇

	十六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三九、九九五	一〇低
東京	四一、〇六錢	一四錢低
兵庫	三九、一七錢	四錢低
下關	三九、四〇錢	七錢低
桑名夕後	四〇、三九錢	三錢高
名古屋	三九、四八錢	二錢低
金澤	四〇、〇三錢	三錢高
熊本	三九、一二錢	一錢低
仁川	三五、〇四錢	五錢低

◇阪仁氣配◇

大阪 三十九圓九十五錢七厘
仁川 三十五圓一錢二厘

◇各限俵合◇ 十六日後場

當限(計三、〇〇〇石)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中限(計九、〇〇〇石) [illegible]
先限(計四二、一〇〇石) [illegible]

咸南線成績良好

咸南線의 客月中成績을 示하면 乘客人員 一萬二千三十四人 收入五千三百九十三圓 貨車收入三千七百四十二圓 合計九千百五十八圓이며 [illegible] 大豆出荷의 旺盛으로 頗히 良好하다더라(元山)

三湖明卵輸出旺盛

三湖明卵은 數年前外지는 成績이 不良하야 外地의 輸出이 稀少하엿스나 昨年부터 本地漁業組合에서는 極力으로 品質改良에 努力한 結果 今年부터 價格도 高騰하며 日本, 元山, 釜山, 京城地方에 輸出이 旺盛한데 其中 京城地方에 輸出이 大多數이며 去十四日外지 外地輸出이 二千桶에 達하얏다더라(三湖)

襄陽盜火預防宣傳

襄陽警察署에서는 去四日부터 盜難과 火災를 豫防하기 爲하야 管內各里에 每夜로 巡警을 行하며 署員이 出動하야 此에 對한 宣傳『비라』를 各戶에 撒布하고 一方으로는 有力者를 勸勉하야 消火用[illegible]를 共同購入하기에 努力하엿는데 成績이 頗히 良好하다더라(襄陽)

謹告

本報第一千五百六十號는 十二月十七日附(十六日夕刊)中 當局의 忌諱에 抵觸되야 發賣禁止의 處分을 當하얏기로 該記事만을 削除하고 號外로 發行하얏기 玆에 謹告

朝鮮日報社

今日無線電話放送初日

열한시부터에독자、오후한시부터부인、오후세시부터일반공개

장소는관렴동우미관、무선전화와활동사진과 고성축음긔등의실연

조선말로처음전하는무선뎐화의 방송시험은 작일까지 제반준비를마추어 금십칠일오전 열시에 정식으로데신국관리의검열을바든후 열한시부터시작하게되얏습니다

뎨일차 열한시부터는 조선일보에박이입장권을가지고오신이에게

뎨이차 오후한시부터는 일반부인에게공개

뎨삼차 오후세시부터는 일반에게공개하기로결뎡되얏습니다 만원이되면시간전이라도입장을사절할수밧게업스니 아모조록일즉이입장하시기를바랍니다 (회장은관렴동우미관이며전차로는종로청년회관압히나황금뎡상품진렬관압뎡류장에서나리는것이편합니다)

무선전화의방송이외에 자미잇는활동사진 영사와 처음보는고성축음긔실연도잇습니다

共産黨員黃某

여장사로변장하고잠입 시내각서의긴장한공긔

압록강에 물이어르면 해마다국경방면의 독립단 삼입설이 돌하진다 더욱히금년에는 중국의내란이잇자 독립단의활동이 매우조직뎍으로 진행된다는 뎡보를접하는경찰당국은 겨울이 되면감시와경계를 게을리하지 안는중요사히어서때리아니코리스크방면에서 공산당원으로잇든 황모(黃某)라는청년이 모 중대한임무를띄우고 국경을넘어 거짓 여장사노릇을하여가며 경찰의 감시를피하야 경성에잠입하얏다는정보를바든경찰부에서는즉시 시내각경찰서에 급보하야목하 그의거취를엄탐중이라는데 그가잡히는날이면 의외의무서운계획이 폭로될지도 모른다더라

修校財産問題

분규를계속중

양평군 지뎨면곡수리(楊平郡砥堤面曲水里) 사립수성학교(私立修成學校)는창립이래십팔개성상을 근근히지내오든바 대정팔년구월경에 전군수윤성희(前郡守尹成熙)씨의노력으로긔본재산(基本財産)이천원의긔부를모집하야 당시면장겸 수성학교 교장김용락(金容洛)씨에게관리케하고 면사회의 리식으로경비에충당케하얏든데 동십일년에긔개월간을 폐교의 비운에이르게한일이 이삼차나 잇섯든바 이것을본곡수、옥현、대평(曲水、水谷、玉峴、大坪)사개리 유지제씨는 궐연분긔하야 후원회를 조직하고 현재교사는 오륙십명의수용에불과함으로 신건축을 계획하고 긔부금허가를 어더대확장을하는동시에 교장김보락씨를 사직케하고 긔본재산 취급문부를 인도하기로결의하고 지난구월 륙일에문부됴사를하얏는데 채무자 수십인중에 청장할만한이는 몃사람에불과하고 주소불명 또는 능력이업는이와 혹은 채무자에게돈도 밧지안코 차용증서를 준것이 발각 되얏슴으로 유군수(兪郡守)에게사유를진술하얏든바 견책外지당하고 문부를 인계하랴고하는중 리긔완(李基完) 김정석(金正錫)두사람이인계를반대함으로 아직시비중인데 곡수리주재소에서는 문부를갓다가 됴사중이라는데일반은주목중이라더라(양평)

饑饉에우는 醴泉豐壤面民

삼백여명의다수한걸객이 주린창자를움켜쥐고헤매

례천청년회(醴泉靑年會)에서동군풍양면(豊壤面)의긔근을구제하고자분긔하얏다함은긔보한바 어니와동면의참상을드른즉동면은본군남쪽구석에잇서서교통이심히불편하고 따라 토질(土質)이불량하야 다른면보다 농산물이 그리풍부치못할망정 인가는 매우복잡하야 일천륙백여호에 인구가 구천여명에 달하는고로 그면에서 소출되는 곡식으로먹을것을제하고나면 수출될것은 얼마되지아니한형편인데더구나 금년에는 천재로업든재앙을당하야본군십이면중에한재중 재풍재가 유독심하야 례년에비하면 수확이륙할이상이 감소되얏슴으로 남의땅마직이나 어더가지고 일년동안 죽을힘을드려지은 농사가씨갑도 빼지못하고 초가을부터 나물죽으로 겨우연명을하다가 그것도 할수가업서 지금은 지사방으로 먹을것을 구하랴고청들고낫익은고향을떠나생소한디방을향하는 자도또한 적지안타하며소위행세한다는량반들은참아구걸도하지못하고하로밧비죽기만기다리고잇다는데만약이현상대로 지내간다하면 이치운겨울날에 그들은먹을것이 업서굴머서죽을터이요 입을것이 업서서얼어죽을터이라하야 풍양면 일대는인심이매우흉흉한모양이라는데장차그들의 생명은무엇으로 보존할는지참말가련한형편에잇다더라(례천)

주린창자

를움켜쥐고어린자식들을 압뒤에세우고 류리걸식하는이가 날을따라 더하야 삼백여명이라는 걸객들이 그면내를 방황하게되얏다 그러나소위돈푼이나 가졋다는 재산가역시 자긔농사에손을썻고 바들소작료를 못바덧슴으로 푸대접밧게할수업는 형편인바 집집마다개를짓기고 다니는그들은 북바쳐나오는 설음을 참다못하야산

日本苹果 不買同盟

상해중국인이결의 진남포평과도타격

수일전에 중국상해(中國上海)에잇는 삼정물산주식회사(三井物産株式會社)로부터진남포(鎭南浦)과실주식회사에도착한정보에 의하면중국 상해수과업억당(水菓業[illegible])이란과실판매 동업조합에서는 얼마전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일본산평과(苹果)불매 동맹을 일치결의한후 선전문을 전시에 배포하야일본 청삼(靑森)방면에서와조선진남포에서간평과는도모지팔수가 업게되엿다는데

그리유는

전중국뎍으로 긔념하는 일본에대한 감정이라는데 이번불매동맹이 일어나게 된동긔는 일본과진남포 방면에서수출한 평과등속에서 일본문으로박은 신문지를 발견하고비로소일본평과임을 깨다른 것이라는데 이로인하야 진남포평과 재배계에는 큰타격을 밧게되엿슴으로 재배업자간에서는 미국평과하조(荷造)법을모방하야미국산으로 팔어보고자 고심연구하는중이라더라(진남포)

生命을犧牲 日工七十錢에

토굴에서일하다 문허저서참사해

이천군서면하화암리(伊川郡西面下禾岩里) 안보옥(安寶玉)(二二)과 해주군청룡면구정리(海州郡靑龍面九井里)리종유(李宗[illegible])(二九)두사람은 집이빈궁하야 생활할도리가 망연함으로 사면으로 표박하야다니다가 지난구월경부터 텰원군(鐵原郡) 텰원수리조합(鐵原水利組合)에와서일급(日給)칠십전을 밧고 토굴(土窟)공사에몸을부터여 근근히 생명을유지하든바지난십삼일

오후세시

경에두사람이 토굴속에서 일을하든중 돌연히 굽히가득척 가량되는언덕우로부터 흙이문허지기시작하야 두사람이모다치엿는데 안보옥은 잔허리가부러저서 즉사하고 리종유는오른편팔이부러저이사를모르고 신음하는바 공사인부오십여명이모여들어두사람의몸을떠메고텰원공추방병원(諏訪病院)으로가서 구호한결과

안보옥의

생명은다시구할도리가업고리종유는겨우정신을차리나 아즉까지도생명의 위험이업다고 할수는업다는데 그 뒤에따러온 사오십명의 로동자들의슯허하는 정경은 누구나보고다 눈물흘니엇다더라(텰원)

興信所를미쉬로

협잡하라든소림정삼등 관계자면보견등은데포

일본인 소림정삼(小林正三)이라는 자를중심으로 조선인들이모도혀 시내주교뎡(舟橋町)일백사십사번디에다가 경성흥신소(京城興信所)라는 것을세워 놋코시내각처로 도라다니며 여러사람에게이천여원이나사취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야종로 경찰서고등계에서는 극력묘사중이라는데 이미 피의자로뎐보경(田寶璟)(三一)외두명을 잡아어중취됴 중이며 뎐보경이가 잡히자소림정삼은 한경도방면으로 피신을하얏슴으로 아즉은 피해자조사를계속중에 잇다는데 십륙일에는소림정삼의 쳐를증인으로 심문하얏다더라

紛爭中의 金谷齋畓

청년회측강경

경상남도 동래군 귀포면금곡리(慶南東萊郡龜浦面金谷里)에는 사십삼년전에 서국렬(徐國烈)외삼십이인이 일반아동교육을 위하야 곡식을모아식리(殖利)하야 재답(齋畓)여덟말시기를 사고 또동답(洞畓)두마지기를 화목료(火木料)로어더오는날까지 서재경비로 쓰다가 금년부터는 시대의 진운을따라 강습소로변경하고 그곳청년회에서 관리서 국렬의 명의로잇는 재답의수확을

인수하야

강습소의경비로 쓰기로동회석에서 결의되얏다는데 이재답을사든 사람의자손들이 팔어먹자마자하야 수년전부터 분쟁이 종종이러낫든바 지난십월경에강사홍(姜士洪)강영숙(姜永淑)김백긔(金白起)등이모히여소나한바리잡고논을팔어먹자는의론까지잇섯다는바그후에강영숙、김백긔、강상희(姜相熙)등륙명이 재답을 개인의 명의로둠이위험하니

공동소유

로하자고주장합에대하야 서씨와 청년회에서는 불응하얏슴으로 더욱분쟁이 일어날뿐더러 전긔강상희등 륙인편에서 소송外지하얏다는데 그불응하는리유는강사홍등이재답을팔어먹고자하나잘되지아니함으로 전긔와가티 외면으로는 공동소유로하자고주장하나내면으로는서씨의명의를

변경하야

자긔들의공유로만든후에 팔어먹을뜻이 잇다고하야 상지하는것인데 그재답은본래서재를위하야긔부한것인즉 차라리동리일반의 공유로함은 무방하거니와 그들만의공유로는할수업다고하야청년회에서는극력반대한다더라(동래)

江華放火女犯

작일검사국에

강화군 량도면길뎡리(江華郡良道面吉亭里)에사는장도현(張道鉉)의처고씨(高氏)(三二)는 지난 팔일밤 여덟시경에 그동리장성록(張成祿)의집에방화하야그집 한채를 태우고 슬그머니자긔집에와잇다가 엇더한 단서로강화경찰서에 잡혀취됴를 마치고작 십륙일에 경성디방 법원인천지텽(仁川支廳)검사국으로넘겨방금심리 중인데 그방화한내용인즉전긔고씨는 장성록의 처리씨(李氏)와 얼마전에 삿갓(草笠)으로인하야 말다툼한 일과장성록의집에서 계란을 일허바렷슬때에 고씨에게 치의를한관계로 감정이나서 그와가티 방화를한 것이라더라(인천)

區長排斥熱이

군당국원망으로변한다

충남연기군 서면동암리(燕岐郡西面龍岩里)에서는 동민일동이 구장(區長)류경식(柳景植)을 맹렬히배척한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구장류경식은 그동리에무식한 사람이 만흠을리용하야 행동을함부로하야 농사무소로부터 배부한 도로수축비(道路修築費)와또비료고건축비(肥料[illegible])등을 민들이 만흔불평을 품엇든중면

동리사람

에게는한푼도 주지아니하고 자긔혼자 집어먹은것이 발각되얏슴으로 동민들은 분개하야 지난구월경에 진정서를 군청에 뎨출하얏스나 아모효과가업슴으로 다시 도텽(道廳)에 진정한결과 도청에서 군청으로됴사하야올리라고하얏는데군청에서는 동민의 말은조금도 듯지아니하고다만 구장의 말만신용하야

도사문서

를작성하야 도청으로보내고 구장은 여전히변동이업는중 구장의행동은 더욱심하야 동민일동은 배척렬이 날로강경하야 군청의 불공평한 것을비난한다더라(조치원)

朴箕哲氏慈善

도로에방황하는긔근민에게 솜옷한벌과고무신한켜레식

전북정읍군 정읍면장명리박긔텰(井邑郡井邑面長明里朴箕哲)씨는 원래 재산가로서자선심이 풍부한사람인데근래에긔근으로 인하야각처에서모여드는걸인이 도로에서 방황하는것을 가긍하게생각하고 십오세이하의 어린아이와 자긔의손으로노동할수업는 로인과 그외폐인들을 자긔집으로 불러들여 솜옷한벌과 고무신한켜레식을 주어보낸다는데 벌서사십여명에 달하얏다더라(정읍)

魯城公普 紛料問題로

선후책을강구

충남론산군(論山郡)로성공립보통학교(魯城公普校)에서는근일에남녀학생간의충돌로비롯하야학생선생간의 충돌과 또선생들의충돌이일어나고 계속하야 학부형들의시비外지일어나게되얏다는데 그내용을듯건대 그학교에는녀학생수가사오명에지나지못하야 학부형측에서는 학교당국에 수차교섭하얏스나 하등의 처치가업슴으로 교수를 열심으로하지아니한다는것과 언어가 점잔치못하다는것과 동료(同僚)끼리화목하지못하다는 세가지됴건으로선생을개선하기를군당국에진정하얏는데 군당국에서역시 하등의처치가업고 다만녀학생들의출석만권고함으로수일전에 학부형회와 학무위원회(學務委員會)를열고선후책을강구하얏다더라(강경)

紛糾中의 永興麯組

언제나해결될지

영흥국자조합(永興麯子組合)은 금년사월에 비로소 군당국의지휘아래 창립된이래로 여러가지 알륵이계속하든중 금번행정쟁리로해임된군수강계항(姜啓恒)씨가 간뒤에 림시대리서무과장 장되(庶務課長[illegible])씨는 본도 석곡(石谷)세무과장이동조합의 분규문뎨를 해결키위하야 당디에올을 긔회로 당디모면장에게 명령하야 지난사일에 영흥국자 제조업자전부를동원공립

보통학교

내에소집개회하고자긔가몬저단에올라이전조합의성적을찬미하엿다따라석곡(石谷)세무과장이단에올라당국의태도와 립장을말하고 동업조합령(同業組合令)에의하야공동조합을설치함이엇더냐고하매최초당국에서지정한조합장으로현장에서 사표를뎨출한로진우(盧鎭禹)씨는 가부를뭇게되엿는데 원래반수도 출석치못한 조합원중에도

조합총회

인지 모르는자가 대반인중조합원중장영종(張永鍾)박뎡호(朴貞浩) 량씨가우리는총회에출석한것이 아닌즉 모도임은후일총회에서 결뎡하자고 노호하매장내의 공긔는매우 긴장하얏다전조합장노진우(盧鎭禹)씨는지금外지 자긔를신앙하는 조합원수십여명에대하야 우리는 당국의취지와가티

동업조합

을찬성하자하매 애초부터불신임(不信任)하든수십명조합원은일제히분긔하야우리는『그권리시총회에서결의함과가티진행하되당국의지휘잇는데따라서부규약은폭변경할지언뎡우리는절대로너에게복종치안할터이다우리조합은너에조합이아니다』라고 노호하면서일제히퇴장하매할수업시석곡(石谷)세무과장은 다시후일개회를선언하고 폐회하엿는데 장내장외의 공긔는무슨권장이나 지남과가티살긔가등등하엿다더라(영흥)

醴泉에 靑年雄辯大會

오는이십팔일에

조선의 청년운동이 차차조직뎍으로 진뎐됨을따라 경북례천군(醴泉郡)을중심으로한 각청년단톄의련합으로청년운동의신단계를열기위하야 오는이십팔일 오전부터 례천유일한원에서 웅변대회(雄辯大會)를개최한다는데 연사는한단톄에서 두사람이상으로하고연뎨는수의로할터이라더라(례천)

宣言書問題로

상해청년분규

상해청년동맹회(上海靑年同盟會)에서지난번에 발표한뎨이차선언서(第二次宣言書)에대하야일반사회에서 비평이업지 아니한동시에 동맹회의 간부인윤자영(尹滋英)과 현뎡건(玄鼎健) 량씨에게 대하야무슨 불미한사실이잇다하야 지난오일 밤에급히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 소집하고 토의한 결과뎐선언서는 다소수정하기로 하고 윤자영현뎡근 두위원은 그사실이 세상에 밝게 드러날때外지집행위원의 직권을 뎡지하기로 결뎡하얏다더라(상해)

在布同胞의敎育

각국인종에비하야뎨일고률

정든고국을 등뒤에두고 태평양(太平洋)을격하야멀리『하와이』의『파푸아』그늘아래에서 여러가지로 살기를위하야 로력하는 우리동포의 수효가 오천여명에 달하며그들은더욱이 긔미(己未)년운동이 잇슨이래 여러가지로 피와힘을 합하야 고국을위한활동이잇스며 안코계속됨은 우리해내에잇는 동포의 김히아는바어니와 이제그들의

교육상태

(敎育狀態)를 듯건데『하와이』에 모혀사는 다른여러나라 사람의 교육상황보다가장놉흔 『하와이』관립 학교에입학한학생의수효가 일천구백십년에 이만이백사십오명이든것이 일천구백이십년에 이르러는 사만일천 삼백오십명으로 느럿스며 또일천구백이십사년(금년)현재에는 오만일천오백 오십칠명에 달하야 그수효가 느러가는바

조선동포

의느는비률이 뎨일놉하서 일천구백십년에 일백륙십사명이든것이 동이십년에는 오백삼십오명에 이르럿고 금년에는 구백이십칠명에 달하야 일천구백십년보다 약사십륙할이될분에달하야 이것이 다른나라인종보다는 배이상이나 증가되얏다는데 이제 각국인별로난호아 그증가되는비률을 소개하면다음과갓더라

	一九二〇年現在 一九一〇年보다	一九二四年現在 一九一〇年보다
조선인	二三割	四六割一
일본인	一九割	三九割四
포토우리안인	二〇割	二〇割五
중국인	八割一	一七割六
반하와이인	七割三	一〇割
필립핀인	一	六割九
포취키인	四割六	一五割
하와이인	六九名減	一一名減
서바나인	一	七五名減

虎門事件當日 國粹運動計劃

일본동경에서

오는이십칠일은 작년에 난파대조(難波大助)가 섭정궁뎐하께 총을발사하다가 잡힌날임으로 황실을위하야국수운동(國粹運動)을 이르키는적화방지단(赤化防止團)흑룡회(黑龍會)대행사(大行社)동서단톄에서는 향사를 배반하든이 날을택하야 특히황실을옹호하는운동을 일으키고자 십오일에 여러단톄를 모히어 당일에진행할 여러가지사항을협의하얏스며 다시이십사일에는 최후협의를마친후이십칠일에는 협조회(協調會)에 모히어 수천명이 나되는 단원들이 새벽부터모도혀 우선명치신궁을참배한후시내각처에 난호혀 강연회를개최하리라더라(동경뎐보)

安峽靑年講演

대환영을바덧다

강원도이천군(伊川郡)안협청년회(安峽靑年會)에서는지난칠일하오팔시에 당디공립보통학교안에서강연회(講演會)를개최하얏는데 고홍권(高洪權)씨는『위생에관하야』라는연뎨로 김원섭(金元燮)씨는『금융(金融)의사명』이라는문뎨로 리필두(李弼斗)씨는『생명의뎍(的)』이라는문뎨로신재남(申在南)씨는『장생의약』이라는문뎨로 윤정동(尹貞童)씨는『우리청년의각오』라는문뎨로 김현성(金顯星)씨는『청년의수양과자각』이라는문뎨로윤오정(尹五正)씨는『청년의책임을중머시하라』는 문뎨로각각열변을 토하고 최병규(崔炳奎)신칠성(辛七星)리홍긔(李鴻基)삼씨의 주악(奏樂)이잇서수백명청중의다대한환영을바덧다더라(안협)

上海競技消息

고려군과탐구전

상해에 잇는우리고려탐구대(高麗探球隊)와 외국측연합탐구뎡과경기를 하얏다 함은이미보도하얏거니와 지난사일밤에는 상해포병대(上海砲兵隊)와처음경기를 하야 사십삼대십구(四十三對十九)로 우리고려탐이대패하얏다더라(상해)

老婆燒死

곡식을꺼내다가 무참하게죽엇다

양양군 거마리김일룡(巨馬里金日龍)(六六)은본래 가세가 극빈하야 남의집에서 품팔이를하다가 금년가을에 겨우초가집 두간을 짓고생활을 하야오든 중은일에 전가족이 동군긴진 리라는 포구로품을 팔러가고 업는사이에 지난십삼일밤 오전일곱시 삼십분경에 그집에서 불이일어낫는데 김일룡의 모친박성녀(朴姓女)(四八)가방에서쟈든곡식을끄집어 내이고자하야 맹렬한불길을 무릅쓰고 드려갓다가 미처 나오지 못하야 가엽시 참혹히타죽엇다더라(양양)

大規模의 허풍선이

취됴를하야본즉 무전유흥을자백

동경시 하곡구동붕뎡대합 복뎐(東京市下谷區同朋町待合福田)의집에서 호탕하게 노는신사한사람이 잇는데 소관경찰서에서는행동이 이상하다하야 취됴한결과 그자는 긔옥현(埼玉縣)출생인삽택방언(澁澤芳彦)이라하면서미국(米國)『모루간』으로부터 오억만원의 금권을휴대하고와서

일억만원

은흥국은행(興國銀行)을 매수하야 삽택은행(澁澤銀行)이라 개칭하고 오천만원으로는 동경뎐등(東京電燈)의 사채(社債)를 사고 또일억오천만원으로는 동경(東京)의사채를사고 남어지일억만원은 삽택연료회사(燃料會社)를 세우고 엉터리업는 거짓말로 경관을 롱락하얏다는데 그자는 삼도징길(三島徵吉)이라 칭하야 놀음을계속해왓는바 전과삼범(前科三犯)으로서 권과대합(待合)에서는이수단으로 유흥을

계속해온

것은공범인주뎐송(酒田榮)과가티자뎐하엿는데 그자로말하면 산현이삼랑공(山縣伊三郞公)과도친척관계가잇는자라더라(동경뎐보)

南性祐氏追悼式

십삼일에원산에서

원산(元山)에서 수천(修泉)남성우(南性祐)씨의 추도회(追悼會)를거행한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지난십삼일 오후한시경에 원산청년회두상에서 안녕(安延齡)씨사회로추도회를거행하얏는데 남백우(南百雨)씨의 추도사와 조병덕(趙炳德)씨의남성우씨리력설명이잇슨후세시경에폐회하얏다더라(원산)

崇仁洞에僵屍

십륙일 오전열한시경에 경성시내에서는또한명의 강시가 낫는데이제 자세한 내용을들으면 본뎍과주소를 알수업는 김긔준(金基俊)(三五)은 원래집도 자식도업는사람으로 걸인이되여 사방으로배회하든중 요사이 일긔가심하야 치워지매 시내숭인동(崇仁洞)팔십오번디 비힐집에 들어서죽지못하야 살아오다가 긴긔시일에마츰내 죽은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소관동대문경찰서에 신고하야 경찰의가중진찰한결과영양부족과치위에얼어죽은것으로 판명되엿는데 시톄는즉시 경성부로 인도하야매장케하엿다고

紅疫患者一名

본뎍을 일본병고현상군화뎐촌대자대진(兵庫縣上郡和田村大字大津)에두고 주소를 시내영락뎡(永樂町)일뎡목 칠십팔번디에 둔덕강(德岡) 『스미』 당년두살된 일인계집아이는 요사이 무슨병에 걸리어신음하는것을 의사로하야곰 진찰한결과 홍역으로판명되여 십륙일오후부터 총독부의원에 수용치료하는 동시에 환자의집에는대소독을하엿다고

前科四犯窃盜

목화를도적하고잡혀

본뎍을강서군장안면계뎐리(江西郡長安面鷄田里)에두고 진남포(鎭南浦)룡정리(龍井里)일백사십륙번디에 거주하든 박정빈(朴禎斌)(四二)이란자는지난팔월일 오전네시쯤되여 평리오십일번디 무역상고긔현(高箕鉉)상뎜압헤싸어둔 목화작중에서 오십사근시가사십삼원오십전가량어치를 도적하엿다가 진남포경찰서원에게잡히여 취됴를 마치고 지난십일에 진남포지청 검사분국으로 넘어갓다는데 그자는 이번뿐만아니라 전과가 네번이나잇는 상습절도이라더라(진남포)

夜警과行人

순사가일일묘사

요사이 년말을당하야 도난이심함으로 시내각경찰서에서는 밤마다 관내의야경을 하는모양인데 십륙일밤 동대문경찰서에서는 도서원사십여명을 소집하야 세사람식 대(隊)를지어가지고 관내각처에 배치하야 비상경계를하엿는바 조금만 거동이수상한 사람이면 곳붓들고힐난을하는까닭에 김흔밤에 출입하기는극히 곤난한 모양이라더라

九歲兒不知去處

경찰서에수색원

한강(漢江)인도교(人道橋)건너사는차재현(車載鉉)의자긔맛아들석조(錫祚)(九)와함께 십륙일 오후다섯시쯤되여 문안으로 드러오든도중에서 석조를 어데로인지 일허버리엿슴으로 차재현은 소관경찰서에 수색원을뎨출하엿는데 석조란아이는 검정두루마기 검정바지에 눈만나오는 모자를쓰고 목도리를하고 고무신을신엇다고

휘파람

▲닭의팔자를타고난몸인지、새벽마다회파람을만불기에、혓곱는째쓰이더니、오늘은나의 신에회파람을부러주는 친구가생겨서쥐옥이위로가된다▲아니、『회파람』이아니라『무선뎐화』라한다、내가회파람을불기도전부터무선뎐화가공중에서가진소리를하야간회파람은 잘불리지도안캣다、독자 여러분、그러치안슴닛가▲그러나『무선뎐화』의 회파람이가 미리홍치어 들은것이오、여러분의귀에정말무선뎐화가들리기는 오늘오전열한시부터랍니다▲나혼자만듯기가너무나 신긔하야서 회파람대신에 소개하는것이니 꼭가셔드르십시오『조선일보주최로 오전열한시부터、관렴동우미관에서 들려드린다』든가요

創作 검은敎師 (六)

星海

녀선생이새로 온다는 말을교장이 한뒤로이삼일 동안은학교사무실 안에는 녀선생에게 대한이약이 뿐이엇다 여러직원이 자긔들끼리 모히어안는죡석에는 녀선생의 말니여날뿐가업섯다 그러나K는그들파는 함의석기어 그러한말에 참견할자격이 업는것 처럼언제와 마찬가지로 자긔책상 압헤만 우둑허니 안젓슬뿐이엇다 다른여러선생들의 직거리는말로 미두어 생각하면 한녀성이처와가든니들가운데에 들어온다는것은 한번다시 생각해볼문뎨라고 하엿섯다 그러나이러한생각이 나는것도 다른선생들이 아즉오지도안흔녀선생의 이약이를 하는것이 좀귀에거실리어 들리는때문이엇다 K는역시 담배나 피우고먼산이나바라볼뿐이엇섯다

그런데 삼사일뒤에 여러사람의 화제(話題)의 중심이되는녀선생이 필경왓섯다 하로는K가 교수를필하고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권연을피어물고 책상압헤 안저서신문(新聞)을 보고잇슬째에 녀자하나이 들어왓섯다 K는벌서 이이가 새로오는 녀선생인 줄을짐작하엿다 그째에 녀자는 아모 붓그려움업시 K에게로 오더니『저는 이번에 이학교에 새로온이에요 그런데 교장선생은 어듸계서요』하고 다정하게 몸을굽히고 공손하게 물엇다 그째에 교장은 마츰밧것헤나가고 업섯다 K는 의자에서 이러나면서『어듸가고 업습니다』라 대답하엿섯다 그리고 하인을시켜서 유쳔하는 녀선생은 걸어안저서 직원실안을 주의깁게 휘휘돌려보앗섯다 K는 녀선생은 자긔가 첫번본사람에게 낫븐인상을 주지안흘만큼하엿섯다 키가조곰 후리후리하고얼골빗이희고 조곰동그스름하엿다 어듸가조곰 병이잇는것처럼 혈색이조치못하엿다 그리고 그얼골에 뎨일 특색이될것이 잇다하면 눈고리가 조곰아래로 처지고 입술의 엷은것이엇다 그리하야 K에게는 남쪽에서 온녀자!눈고리가 조곰처진녀자! 입술이 얄실얄실한녀자라 생각하는외에는 별로다른인상은 업섯다

얼마아니되야 다른 선생들도 다교수를 마치고 직원실로도라왓다 그들은 들어오며녀선생을 보더니 무슨큰기대한것이성취나 된것가티 서로벙글빙글 우스며 눈짓손가락짓으로 자긔들께리 무엇이라 수근거리엇다

엇재든 이와가티 녀선생이 온뒤로부터는 이학교 사무실안의 공긔가 좀긴장하여뵈엇섯다

K가 이것을 특별이그러한 눈으로 보아그리 함인지는알수업섯스나 제일 다른교사들의몸갓는것이 달랏섯다 그가운데에 한선생은 K가그학교에부임하여 간뒤에로 수업깍는것을 본지가 몃번이못되엇섯다 그래서 아래우렴은언제보아도 누르고도 가는수염이 수북하게 낫섯다 머리를반달에한번이나 두달에 한번깍는 그째에라야만 비로소 얼골이 사람다워 뵈엇섯다 언제든지 원숭이나 『로빈손、쿠르소』를 련상할만큼 온얼골이 털빗이엇다 그런데 이상스러운일은 녀선생이 온뒤로는 얼골이털을벗게 되엇섯다 그리고또한 사람의선생은머리에 안바르던 기름을바르게되엇고저금(貯金)을차저서구두를 주문하느니양복을마추느니하엿섯다

또한사람은 자긔배ㅅ속에 학문이 누구보다는 만흔것처럼 모든것을 아는데하엿다 이사람은 본본 다른사람보다는신문이나잡지가튼것을 만히 보앗섯다 그래서 매양 단편뎍사상으로 세계의대세가 엇더하다는둥 근래에 사상이엇더케 변하여간다나는둥 엇재든 이이에게는 과학이나 사상에 모르는것이 업섯다 그러나 이것은 다자긔의생각이란것을 한번 거쳐나오는것이아니라 그대로생키엇다가 그대로 내놋는것이엇다 그런데 녀선생이 온뒤에로 이사람은 별안간에 아는것이 더부른드시말만나오면 세계대세(世界大勢)로ㅣ사상(思想)으로 교육자의 텬직(天職)으로 말이말의ㅣ꼬리를 물고 나왓섯다 K는 이것을 발아볼때에 우수운생각이 낫섯다 그러나 그녀선생은 그들의 그러한것에는 아조무관한것처럼 뵈엇섯다 다른선생들은 자긔들께리 서로서로의 태도가 변한것을 서로발견한것처럼 모여안즈면 『원모양들이러케 내게되엿나?』『양복!조헤!』『별안간에 학자가되엿군!』이라 구슬리는소리가 들리엇섯다 K는이러할째마다 우숨을참을수업섯다

祝朝鮮日報金浦支局發展

金浦郡守 夫仁植

同 庶務課長 江村杢治

同 財務課長 河野藤一郎

同 勸業課長 李明烈

金浦警察署長 平山正則

金浦金融組合長 奇東式

金浦同 理事 藤井與一

金浦金融組合 許瑄 李[illegible]俊 奇範燮 金東燮

金浦郡郡內面長 尹秉禧

金浦郡新內面 李赫熙 許潤 沈一燮 趙南提 李庸哲

金浦公立普通學校長 井上藤太郎

金浦邑內 金陵商會 理事長 常務理事 書記 洪天植 姜明化 趙南浣 姜煥泳 鄭淳哲

金陵親睦會 會長 尹秉禧 外役員一同

金陵青年會

公醫 李錫駿

代書業 孔仁錫

金浦自動車部

金浦邑內 煙草營業所

金浦邑內 醫生 金尙默

廣興商店 主 崔[illegible]熙

金浦 學務委員 吳順基

同 金陵理髮館 洪[illegible]勳

同 代書業 朴容[illegible]

同 金浦[illegible] 主 文善澤

同 代書業 鄭容[illegible]

金浦郡[illegible]面[illegible]里 成周[illegible]

同 奇[illegible]

金浦郡霞城面[illegible]沙里 學務委員 趙在鳳

同 霞城面 趙命鎬 宋道勉 李競儀 閔丙叢 洪錫九

同 [illegible]沙里 朴容德

同 朴容達

[illegible]城面[illegible]谷市場 布木及雜貨商 金[illegible]